

# 與 “원 구성 행동 돌입” 최후통첩



원 구성 촉구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기자회견

##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국회, 일 좀 합시다” ‘21대 국회 원 구성 촉구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초선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문관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상 테드라인 종료...여야, 법사위 놓고 평행선 대치

민주 “박 의장 결단을”...통합당 “법사위 안 주면 대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을 원 구성 테드라인을 설정했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안정을 위한 국회의 업무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은 예결위를 비롯한 7개 주요 상임위를 야당에 양보하는 통 큰 제안으로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냈지만 장시간에 걸친 협상안은 미래통합당의 합의 반복으로 또 다시 불거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정은 영과 민생입법을 저지하려는 낡은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더는 원 구성을 늦출 수 없다며 법사위를 비롯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원 예결위와 기재위부터 단계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을 이달 내 처리하려면 이들 상임위가 필수”라며 “15일 통합당이 응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분회의에 상정하자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2일 분회의를 보이콧한 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대화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합의 뒤집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합의 수준도 아니었다”며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 4년을 망치는 단검”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여당과 합계루

기를 이어가고 있는 통합당은 결사 항전 모드에 돌입했다.

선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몇 개 떡고물 같은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야당의 존재가치를 팔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최선인 박수영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법사위를 안 준다면 이것저것 구걸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며 “법사위를 안 주면 상임위를 하나도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양측에서 강경론이 비등해지면서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인 전망이 나온다. 다만 원 구성에서부터 대립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닫힌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야권 통합 서막 오르나

안철수 “김종인, 내 방향과 비슷”...김종인 “회동 피할 것 없어”

미래통합당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난다면 낮은 수준의 정책 연대에서 시작해 2022년 대선을 앞둔 야권 통합의 서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은 최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는 것이 피할 건 없다”고 했고, 안 대표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

부터 내가 말하고 내세워왔던 것들을 카피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 정도”라고 호평을 내렸다.

양당 의원들도 여러 만남을 이어가며 야권 연대의 공감대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공동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을 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포럼은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았다. 모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14일 “거대 여당에 맞서 야권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며 “자주 만나고 친해지면서 충분히 통합의 가고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바른미래당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로 이뤄진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전·현직 의원들도 정기적인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3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당은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가 전멸하다시피 한 통합당 처지에서도 여당 독주의 정치판을 뒤 흔드는 연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안 대표가) 통합이나 후보 단일화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야권 단일후보의 꿈이 있다면 내년 보궐 선거 전에 들어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오늘 6·15선언 20주년 행사

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행사를 연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전 총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축사 및 기념사를 하고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15 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임 전 원장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남북관계를 개선해 평화를 만들며 통일의 길로邁進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 6·15남북공동선언20주년특별위원장인 김한정 의원의 사회로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진행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최근 북한의 긴장 조성 배경 등 한반도 정세를 논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한 김한정 위원장은 “지금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다.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한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차분한 자세로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정상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힘을 모아 나가면 파국을 막고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이용빈, 코로나 피해 中企 탐방 애로 청취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탐방을 하는 등 ‘사여삼광’(4일은여의도·3일은광산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기업탐방 첫 번째 일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제품을 개발하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단 내 ㈜동이기술을 방문했다. 이 회사는 판로개척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기술과 제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기업이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광주 시와 광산구가 새로운 공기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하고도 제대로 활용조차 못해서 안타깝다”라며 “미세먼지 저감과 제거

기술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우수한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품개발 후에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시범사업 등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향후 지속적인 기업탐방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김원이, 목포 청년들과 “유달정담” 근황 토크

더불어민주당(목포) 국회의원은 14일 “문화, 레저, 스포츠 등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공약인 문화공간 ‘박스파크’ 등 목포청년을 위한 새로운 대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목포시 ‘문화공간 오즈’에서 “잘살고 있니? 목포살이 청년들과 근황토크 ‘비어비워’라는 주제로 두 번째 ‘유달정담’을 개최했다.

서효호(목포살이 중인 경기도 청년)의 사회로 시작된 유달정담은 ‘목포살이’ 관련 3가지 키워드를 적고, 목포에 대한 만족도를 퍼센트(%)로 표현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의원은 “청년문제는 국가가 직



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청년을 위한 지방청년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년 지원

정책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면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면 아르바이트 해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자기개발,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다”며, “창업과 고용, 취업할 때 지방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서 “현재 지방청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목포 청년들과 함께 상의하여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